

2015학년도 대수능 한국사 해설

1. 정답: ③

-답을 찾는 key point: 1.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모두 가매장
2. 가족과 살이 다 썩은 다음에 뼈만 추려

-해설: 옥저에 대한 설명이다.

옥저에서는 가족공동묘제(골장제)가 있었는데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매장을 해두었다가 가족들이 죽으면
함께 묻는 가족공동묘제가 존재하였다.

또한 옥저에서는 지리적 요건 때문에 고구려에게 수탈을 많이 당하였다.

소금과 어로 등의 물자들이 수탈 당하였다.

-오답check ① 동예의 제천의식이 무천이다.

② 소도가 존재한 곳은 제정이 분리된 삼한이다.

④ 철이 많이 생산된 국가는 변한이며 이를 낙랑과 왜에
수출하였다.

⑤ 제가회의를 통해 범죄자를 처벌한 곳은 고구려이다.

-참고 tip 풍속비교

부여: 제천행사 영고, 우제점법, 형사취수제

고구려: 제천행사 동맹, 우제점법, 형사취수제, 서옥제

옥저: 가족공동묘제, 민며느리제

동예: 제천행사 무천, 책화

삼한: 제천행사 5월 수릿날 10월 계절제, 제정분리사회

2. 정답: ①

-답을 찾는 key point: 이차돈의 순교, 병부설치, 공복제정, 금관가야 병합

-해설: 이차돈의 순교와 불교공인, 병부설치, 공복제정, 금관가야 병합으로 보아 이 왕은 법흥왕이다. 법흥왕은 울령도 반포하여 삼국통일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오답 check ② 중앙에 태학을 설립한 왕은 고구려 소수림왕이다.

③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혁파한 왕은 신라 신문왕이다.

④ 지방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한 왕은 백제 무령왕이다.

⑤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한 왕은 신라 진흥왕이다.

참고 tip 교육기관

고구려: 태학-소수림왕

신라: 국학-신문왕 태학-경덕왕

고려: 국자감정비: 성종 성균관: 충렬왕

3. 정답: ①

-답을 찾는 key point: 도원수(고려, 조선시대의 무반), 평양성 격파

-해설: 임진왜란 당시 명군과 연합하여 평양성을 탈환하는 장면에 대한 설명이다.
당시 전패하던 조선군에 위협을 느낀 선조는 수도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피신을 가게 된다.

- 오답 check
- ② 황룡사 9층목탑이 소실된 때는 고려 몽고의 침입 때 이다.
 - ③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가 일어난 때는 나당전쟁 때 이다.
 - ④ 정봉수, 이립 등의 의병장이 활약한 때는 정묘호란 때 이다.
 - ⑤ 군신 관계를 맺는 조건으로 강화를 맺은 것은 병자호란 때 이다.

-참고 tip

오답이 3번으로 많이 간 문제이다. 사료를 고구려 함락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개인적인 의견으로 3번은 나당전쟁이기 때문에 고구려 함락과는 다른 전쟁이라고 생각한다.

4. 정답: ④

-답을 찾는 key point: 무주 쪽이 후고구려(or 고려)의 영토->후삼국시대
대동강 이남의 영토-> 신라통일 이후

-해설: (가) 후고구려, 고려 초기의 수도: 개경(송악)
(나) 후백제의 수도: 전주(완산주)
(다) 신라의 수도: 경주

경주(동경)는 고려 초기 3경(서경, 개경, 동경)으로 중시되었다.

-오답 check ① 대한제국시기 대성학교가 설립 된 곳은 평양이다.
② 무신집권기 망이, 망소이의 난이 일어난 곳은 공주이다.
③ 백제 성왕이 새로운 수도로 삼은 곳은 부여이다.(사비)
⑤ 조선시대 엽포라 불리며 무역이 이루어진 곳은 울산이다.

참고 tip

고려 3경의 변화: 서경, 개경, 동경-> 서경, 개경, 중경(한양)

필자도 5번과 꽤나 고민을 했던 문제이다. 하지만 지금의 경주가 무역항인지를
생각해보면 답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5. 정답: ②

-답을 찾는 key point: 서얼들이 청요직에 임명됨, 중인들의 차별

-해설: 정조 때 서얼들이 규장각 검서관에 임명되는 등 조선후기에 서얼들이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일이 늘어나자 중인들이 신분상승운동을 벌였다. 노비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된 것은 개화기 때이다. (1894년 1차 갑오개혁)